

in Genesis and Jacob(Elgin, Ill.: David Cook Pub. 1976).

- 24)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영적 실체를 향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름을 물었던 그에게 그 영적 실체는 대답 대신에 환도뼈를 치고 떠났다. 절룩거리는 야곱은 밤새 씨름한 사람이 단순히 정신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 실체, 능력적인 존재임을 말해 준다. 그곳을 보니엘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창 32:30)고 말했다.
- 25) 기독교강요 III. 2. 7, 33; II. 2.8
- 25) 필자의 출고, 「21세기의 목회현장과 이상적 목사모델」, 「개혁주의 생활과 교회」, 제10집, (1993, 15~40) 「목회자 모델의 역사」 「개혁신학과 교회」 3(1993), 237~277 참고.

교회교육의 전문사역자 훈련을 통한 교회성장

임 창 호*

1. 서론

우리가 교육을 실천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기본조건으로 삼는다. 즉 가르치는 자(교사), 배우는 자(아동), 교육의 내용(교과서 내지는 교육자료), 그리고 교육의 장(학교 내지는 교실)이다. 이 네 가지는 교육 실천에 있어서 매우 기본이 되는 요소이므로 교육의 분야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시되고 있으며, 끊임없는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에 있어서도 위의 요소들은 예외 없

*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고려신학대학원(M.Div.),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대학원(M.Ed.),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대학원(D.Ed.),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이 중요한 것들이며 당면 과제로 삼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이다. 즉 교사론, 아동론, 교과 및 도야론, 그리고 학교경영 내지는 행정론에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육’이란 세속교육과는 다른, 그 교육이 교회에 속한 ‘크리스챤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나아가서는 크리스챤 아동을 생산(전도)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지닌 교육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일학교 교육을 선교교육이니, 교육선교니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일학교 교육은 교회를 그 교육의 중심적인 장으로 삼고 있으며, 교회교육으로서의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본질적 요소로서 크게 말씀선포(Kerygma), 봉사(Diakonia), 교제(Koinonia), 교육(Didache)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교회교육은 단지 아동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나 전도를 위한 수단만으로서가 아니라, 교회의 당위적 존재이유로서, 또한 교회의 본질적 요소로서 그 사명을 삼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당연히 교회교육 혹은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교회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깊은 참여와 투자(인적물적)가 있어야 한다. 교회 그 자체가 지니는 본질적 사명의 차원에서 교회교육의 제반 문제들을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한편 우리가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돋는 교회교육의 주체자를 지칭할 때 교역자를 제일 먼저 이야기한다. 또한 주일학교 교육의 교역자를 말할 때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당연히 교

육전도사 혹은 전도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왕 교회교육의 주요 지도자를 교역자라는 용어로 규정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목사와 전도사를 의미하는 말일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주일학교 교육을 논함에 있어서 교역자는 당연히 해당교회의 담임목사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교회교육의 주체자로서의 교역자인 당해 교회의 목사를 포함한 전도사(혹은 교육전도사)들의 역할과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위한 작은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려고 한다.

2. 주일학교 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역자

핀레이(PR. Finlay)는 주일학교 교육의 교역자는 한마디로 ‘그 교육분야에 훈련된 전문가’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 교회의 담임목사를 포함한다. 우리 장로회 총회의 헌법에도 목사는 ‘교사로서 교수의 능력이 있고 교인을 교육하는 자’ (교회정치 제5장 31조에서 33조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특히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목사가 교리와 신앙신조 등을 직접 가르쳐 왔었는데, 예를 들어 칼빈이 제네바교회에 초빙될 때에도, 그는 초빙수락 조건으로 교회의 청소년들을 위한 교리교육을 시킬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즉 교역자로서 목사는 당연히 모든 교인들의 교육 부분에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이 때 교인들이란 말할 필요도 없이 주일학교 및 청소년들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형교회이든, 소형교회이든 간에 주일학

교 교육은 담임 교역자로서의 목사가 당연히 지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실천을 몸소 행해야 하는 것이다. 자라나는 주일학교의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그 교회의 목사는 친절한 대화와 관심있는 기도를 보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주일학교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감화와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사의 주된 교역대상이 어른들만을 위한 것이며, 주일학교나 청소년교육은 목사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밟고 있는 전도사나, 교육전도사들의 뜻이라는 생각은 교역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오늘날 현대교회가 점점 대형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담임교역자들의 업무가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일 그러한 요인들이 해당교회 담임교역자들의 주일학교 교육 실천에 하나의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면, 교회는 (교회 전체는) 당연히 이를 심각하고 중요한 교회문제로 받아들여 목사가 지니고 있는 교육분야의 소양과 전문성에 대응하는, 그리고 해당교회 목사의 목회 영역과 목회방침에 보조가 가능한 적절하고도 감당 능력이 있는 주일학교 교육의 전문가(교육전문가 혹은 교육사)를 따로 두어야 마땅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일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문가는 상당한 수준의 자격여건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감리교의 경우는, 인품과 지도력의 구비는 물론이거니와 정규대학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1년간의 기

독교 교육의 수업을 받은 자 그리고 지교회에서 2년 이상의 기독교 교육에 관한 현장교육의 실습기간을 거친 후에야 주일학교 교육의 교육전문가로 임명된다. 1965년 12월 31일 이후, 교회교육의 지도자는 석사학위 이상으로 자격이 강화되었다(1989년 현재). 미국장로교회의 경우도,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주교교사 경험이 있는 기독교 교육의 수업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 담임목사는 어느 정도의 전문교육을 이미 받았거나, 전공자(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교육목사)로서 주일학교 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신학생(한국의 신학대학원생에 해당함)의 경우는, 단지 주일학교 교육의 보조 지도자로서 인턴의 과정을 밟으면서 별도로 기독교 교육의 과목을 이수해야만 한다. 일본의 「교단」 교회의 경우도 주일학교 교육의 담당교역자는 대부분이 담당목사가 맡거나,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일본에는 기독교 교육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오오사카에 있는 세이와대학이 유일하며, 이 대학에 일본 기독교 교육학회 사무국이 있음)하여 '교육주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뒤 몇년간의 주교교사의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해 임명한다. 만약에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자가 교육교사로서 활동하려고 할 때에는 신학대학이나 기독교계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소정의 기독교 교육강좌를 이수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외국의 이러한 예를 구태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일학교 교육이 교회의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교육적 사명의 하나로서 인식

된다면 그 일을 담당하는 자가, 그 분야의 고도의 전문적 교육을 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 교육의 경우에 해당교육의 교사만 하더라도 초·중·고를 막론하고 4년 이상의 교양과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거기에는 정규교사 자격증까지 소지한 자에 한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의 경우는 초·중·고의 학생은 물론이거니와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교육까지도 담당해야 하며, 거기에는 각 분야의 개개 교사들의 교육마저도 담당해야 한다. 주일학교 교육의 담당교역자가 기독교교육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라고 본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담당교역자의 상황은 어떠한가?

3.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현실과 담당교역자의 문제

한국에 주일학교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기록에 의하면 1887년 평양에서 여섯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시작된 이후, 주로 평신도의 손에 맡겨진 교회의 전도기능을 보완하는 부수기능으로 출발했다. 주일학교 운동은 영국에서도 1780년 평신도 로버트 레이크스(Robert Raikes)에 의해 시작되었다. 미국의 경우도 1915년 시카고에서 열렸던 「주일학교대회」까지만해도 무디(Dwight L. Moody)나 제이콥스(Benjamin Jacobs) 같은 평신도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속교육의 조직화된 교육체계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 주일학교 교육의 조직화와 교육전문가의 지도에도 자연히 그

효율성이 요구되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학문의 생산지인 대학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미 반더빌트대학(Vanderbilt University)이 기독교 교육학과를 1902년에 설치하였고 그 이듬해인 1903년에는 하트포드대학교(Hartford University)에 동학과가 설치되었다. 1965년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서 위와 같은 조건하에서 기독교 교육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주일학교 담당교역자(교육전문가)의 수는 무려 11,000명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목사는 어른을 중심으로한 목회가 주된 사역을 이루는 가운데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평신도들의 교회봉사를 위한 신앙적 훈련 내지는 전도를 위한 보조방편의 하나로 생각해온 것이 지배적인 경향이었다. 일종의 유교적 아동 경시사상에서 비롯된 영향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20년대부터 착실하게 발전해 온 주일학교는 1960년대 이후 급속도로 부흥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때에 한국교회는 「교육전도사」라는 특유의 직책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으며, 목회자는 예배와 설교에 관심을 갖고 교육은 교육전도사의 몫으로 분리이양(?)되는 기이한 양상으로 서서히 정착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각 신학대학에는 미국의 영향하에 기독교교육과가 독립된 정식학과로서 개설되었다(도표참고).

〈한국 주요 기독교대학의 기독교교육(학)과 설치년도표〉

1960 송설대학교 기독교교육과

| | | |
|------|----------|---------|
| 1973 | 총신대학교 | 종교교육과 |
| 1974 | 성결교신학대학교 | 기독교교육과 |
| 1976 | 고신대학교 | 기독교교육과 |
| 1977 | 서울신학대학교 | 기독교교육과 |
| 1978 | 침례신학대학교 | 기독교교육학과 |
| 1980 | 장로회신학대학 | 기독교교육과 |
| 1980 | 감리신학대학 | 기독교교육학과 |
| 1980 | 대신대학교 | 기독교교육과 |
| 1981 | 한신대학교 | 기독교교육과 |
| 1981 | 영남대학교 | 기독교교육학과 |
| 1992 | 순신대학교 | 기독교교육학과 |

자연스럽게 교육전도사나 전도사 직무는,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의 재학생들이 담당하게 되었고, 그 직무를 담당하는 이유로 써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학자금 및 생활비 조달, 나아가서는 교육의 실천 및 미래의 목회실습이라는 목적하에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었다.

따라서 이 직책이 요구하는 본래적인 기능과 실제로 수행하는데 따르는 전문성과는 필연적으로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직책은 목회자 대신 주일학교 교육을 거의 전적으로 담당하는 교육전문가로서의 이론과 교육전도사 혹은 전도사이면서도, 그들은 학부에서 심지어는 신학대학원에서도 기독교 교육을 전혀 전공하지

않았거나, 그것과 관련된 과목을 들어보지도 못한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교회는 주일학교 교육의 모든 부분을 전도사나 교육전도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이 일을 그들의 고유한 전문영역으로서가 아닌 파트타임적인 일로 단순히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마저도 그들을 단지 부분고용인(잠시 있다가 갈 사람)으로만 인식하는 경향도 적지 않은 것이다.

교회는 교육전도사나 전도사를 채용할 경우도 그가 해당 분야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며(적어도 교사로서의), 어느 만큼의 소양과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그가 이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전혀 문제시 되지 않는다. 교사는 단지 어느 파트에 교육담당 전도사가 없으니 신학대학원생(대학가 중고등부 이상의 경우)이나 학부생(대학 주일학교의 경우)의 적임자를 두자는 차원에서 인선하여 감당시키는 것이 관례와 같이 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그들 전도사 가운데는 대학시절에 예수를 만나 회심하고 평생을 목사로 헌신할 것을 결심한 뒤 세례받은지 얼마 안되어 신학대학원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으며, 학부생의 경우에도 주일학교의 경험이 없이 고등학교의 시절에 결정적인 회심을 하여 신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들이 그러한 이유로 인해 모두가 부적격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로 인한 주일학교 교육의 실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들 가운데 실제로 기독교 교육이나 교회교육을 전공학과로 삼

는 기독교교육과 출신의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주일학교 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대학부의 경우도 신학과의 교과과정에는 기독교 교육이나 교회교육의 강좌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과목을 한 번도 듣지 않고 졸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며, 신학대학원(고신대학 신학대학원)의 경우도 기독교 교육에 관한 강좌가 3년간 두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으나, 도중에 예수 믿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신학대학원생은 목사후보생으로서 거의가 전도사의 직무에 봉사하고 있으며,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생활을 전혀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전도사가 중·고등부의 전도사로 매주 봉사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대학부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자만이 적격하고 주일학교와 학생신앙운동 생활을 거친자만이 적격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일학교 교육과 학생신앙운동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으로 나타나는 객관적 측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이란 체계와 발달단계가 중요시되며, 교육 실천면에 있어서 그 어느 분야보다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훈련과정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이다.

이런 가운데서 발생하는 주일학교의 교역자와 부장의 역할에 관한 문제 혹은 갈등 관계는 무엇보다도 교역자의 교육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훈련과정 결핍에서부터 생기는 경우가 많다. 즉 몇십 년의 교사경력을 지닌 부장은 경험을 통해서 익힌 관점 위에서, 충분한 경험이 모자라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교사의 경험도 없는 담당 교역자와의 주교 운영상의 의견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단지 세대차이 문제 이전에 훈련된 전문성(한편은 경험만 의식하고, 다른 한편은 경험은 없는 반면 이론만 의식하는 가운데)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가 실제로는 더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심지어는 담당 교역자는 부장이 자기 경험만 믿고 너무 “고집을 부리고 담당교역자를 마치 아르바이트생 취급한다”고 하소연 하는가 하면, 부장은 부장 나름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역자라고 품만 잡는다”라고 하소연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원만하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주일학교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느냐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물론 주일학교 교육을 함께 있어서, 팀웍을 형성하고 있는 담당교역자와 해당 부장간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과 아울러 주일학교 교육담당 교역자는 교육실천 내용에 대한, 운영 스텝진들과의 협심탄화하고 격식없는 대화와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주일학교 교육의 제반문제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도와 적절하고도 설득력 있는 해결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각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 현장에서 야기되는 ‘교육적 문제’ 혹은

교육의 효율성을 둘러싸고 의견이 불일치하여 일어나는 ‘갈등문제’ 등은, 전자는 교육의 전문성과 관련되는 일이요, 후자의 경우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에 대한 전문성과 연계되는 불신임으로부터 생겨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취하고 있는 현행 제도(소위 전도사나 교육전도사에게 교육 일체를 맡기는)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주 바뀌는 전도사들(교육)의 이동,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주일학교 교육 시스템, 이로 인한 교사들과 아동들의 정신적 불안정과 불신감 등은 이미 예상되어지는 일이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교육담당 전도사들의 개인적인 역량에 맡기는 길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을 담당 시킬 교육전문가를 총회적인 차원에서 관계부서(총회, 대학, 신학대학원 등)와의 긴밀한 협조를 갖는 가운데 장래적으로는 제도를 확립시키고 각 교회의 담임교역자들의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며 효과적인 노력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제도적, 구조적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잠정적으로는 기독교 교육이나 교회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모자라는 해당 주일학교 교육담당 교역자들에 대해서는 기독교 교육과 교회학교에 대한 소정의 강좌를 (대학과 신학대학원 공히)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대책을 위한 제언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로서 비유하여 설명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린아이가 밖에서 뛰어놀다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의 품을 찾듯이,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고 안심할 수 있듯이, 성도가 세상에서 영육간에 지친 몸으로 교회를 찾아올 때, 그들에게 평화와 안위를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충전이 가능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참된 진리가 전파되는 곳이 되어야 하며, 잘 준비되고 정비되어진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말이라고 생각된다.

적어도 전도사 혹은 교육전도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이러한 교회개념 가운데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즉 모든 교회는 목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목사후보생인 전도사(교육전도사)들에게 예외없이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의사 후보생들이 잘 갖추어진 병원을 찾고, 병원이 또한 그들을 유능한 의사로 훈련시키는 것처럼, 교회도 목사 후보생들을 훈련시키며, 그들이 와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즉 교회 전체가 전도사들에게 교육적이며 교훈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들의 모범이 있어야 하며, 시골교회, 도시교회 할 것 없이 그들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최선의 교회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도사들은 그러한 곳에서 각양각색의 교회를 체험하며, 그 체험들이 그가 장래에 목사가 되었을 때 각기 달란트대로의 목회

생활을 하는데 큰 기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잘 정비된 교회가 의미하는 바 참뜻이라고 본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현실은 어떠한가? 아마도 모든 교회들은 예외없이 전도사들에게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시키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번 전도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더 크지 않는가 생각된다. 즉 잘 정비된 교회로서의 장래 목사가 될 전도사에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이제 배우려고 하는 전도사에게 지나치게 요구를 하며 영향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도사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갈등을하게 되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모른다고 하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요, 아는 체 하자니 피곤하고 힘만 드는 것이다. 또한 교회는 전도사들이 당연히 주일학교 교육에 종사해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전도사들은 솔직히 말해서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더 배우기를 원하며, 좀더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교회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주일학교 교육을 주일학교 교육의 가장 아파츄어인 전도사들에게 모두 일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도사들로부터 그 능력 이상의 것을 교회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는 순서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담임목사는 그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분야의 하나로서 주일학교 교육에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교회 전체도 주일학교 교육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의 하나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이에 전교회적인 관심(물적, 인적, 재정적)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주일학교 교육을 전공으로한 교육전문가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의 위치는 잠시 있다가 가버리는 그러한 직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하며, 그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담임목사와 목회적인 협조를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형편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일반적으로 전문화, 조직화 되어가고 있는 현대교회는 더 이상 담임목사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목사가 현대교회의 다양한 교인을 원활하게 관리하기에는 신학교에서 익힌 단순한 신학 교육만 가지고는 이미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따라서 담임목사는 교회 전체적인 목회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겠지만, 분야별로 각기 전문적인 교사(상담전문가, 교육전문가)를 두어 목회사역을 ‘팀사역’ 형태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들은 담임목사의 중요한 목회팀워커들로서 정식 전문 유급직으로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미 이러한 움직임은 타교단(통합측, 합동측)에서도 점차적으로 의식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교단에서도 교육전문가(혹은 교육사)에 대한 문제를 이미 총회적으로 연구검토 중에 있다.

수많은 생활정보매체를 통해 교인들의 신앙적 의식이나 수준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데 비해, 교회의 목회시스템이나 교육체계만 이 구태의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1993년도 「기독교대연감」에 의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교회의 성장속도는 최근 몇년 사이에 눈에 보이게 뒤떨어지고 있으며, 놀랍게도 91년과 92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358개의 교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교인의 증가율도 89년도에 92%, 90년도에 5.8%, 91년도에 3.9%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92년도에는 놀랍게도 0.6%의 성장률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교단의 경우 84년도까지는 어른 숫자보다, 유년부에서 대학부를 포함한 주일학교 학생수가 더 많았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여름성경학교나 하기 수련회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5년도 이후 해마다 줄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양적인 팽창을 중심으로한 전도활동에 전력을 다해 힘써서 털려다가 앉혔지만, 내적인 충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노력은 그다지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10여년 사이에 교회 밖의 운동으로 몬테소리선교교육이니, 어린이 전도협회니 하는 단체들이 급속도로 주목을 받게 된 원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교회가 전문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 교회 밖에서라도 보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와 있다는 말이다. 교회는 이제 배우고 출발하려고 하는 전도사에게 지나치게 요구해서는 안될 뿐더러, 그들을 더 이상 괴롭

혀서도(?) 안될 것이다.

전도사들은 목회자인 담임목사와 교육, 상담전문가들을 중심하여, 그 교회에서 목사후보생으로서, 주일학교 교육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교회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해 유익한 목회실습이 가능하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유치부에서 노년부에 이르는 모든 주일학교의 교육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될 수 없는 당회 교회 담임목사의 매우 중요한 목회과제이다. 그리고 담임목사는 이 교육적 과제를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교회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두어야만 한다. 물론 그는 교육 전도사나 전도사가 아닌, 교회교육의 전문가이여야 한다. 전도사(혹은 교육전도사)는 계속 훈련되고 연습되어야만 하는 목회실습생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장학되어야 할 자들이다. 따라서 교회는 훈련시키고 연습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한다.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바라보면서 교회교육의 주체자들에 대한 새로운 이 역할을 기대하며 그 지평이 힘차게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것이다.